

2018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㊀	33	㊁	34	㊂	35	㊃
36	㊄	37	㊅	38	㊆	39	㊇	40	㊈
41	㊉	42	㊊	43	㊋	44	㊌	45	㊍

해설

[1~10] 화법과 작문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발표 계획 세우기

발표자는 현대에 와서 ‘까치밥’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까치밥’ 문화의 의미를 살리자고 제안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를 할 때 발표자의 개인적 경험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발표자는 현대에 와서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조상들의 아름다운 ‘까치밥’ 문화의 의미를 살리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친구들에게 ‘까치밥’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친구들에게 감이 까치밥을 대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까치가 길조라는 선조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까치밥’이 나타나게 된 유래가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발표자가 펠 벅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는 3문단에서 외국인의 눈에 한국의 ‘까치밥’ 문화가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오답풀이】 ① ㉠을 제시한 이유는 ‘까치밥’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이므로 까치의 식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을 제시한 이유가 ‘까치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글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 펠 벅의 경주 방문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까치밥’ 문화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글의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을 인용한 이유는 까치밥 문화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므로 까치에 대한 농부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글의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비판적으로 듣고 질문하기

<보기>를 통해 학생이 질문하기 위해 생각한 핵심 내용은 ‘까치밥’ 문화가 사라진 원인이 주거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까치밥’ 문화가 사라진 시기에 대한 질문은 학생 생각의 핵심 내용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까치밥’ 문화와 도시화의 관련성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③ ‘까치밥’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은 학생 생각의 핵심 내용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현재 사회에서 ‘까치밥’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주거 환경의 변화를 묻는 질문은 학생 생각의 핵심 내용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사회자의 토의 진행 방식 이해하기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화법의 한 양식으로, 사회자는 참여자들이 협력적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한다. ㉠에서 사회자인 ‘민재’는 ‘우승’이 이전 발언에서 제안한 심리검사를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토의 참여자에게 협력적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민재’는 ‘2학기 토대상담 행사 운영 방식’이라는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에서 ‘민재’는 참여자들이 ‘주간 행사’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을 언급한 후 다음 논의할 사항을 이어가고 있다. ③ ㉢에서 ‘민재’는 ‘진희’에게 앞의 의견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에서 ‘민재’는 토의에서 논의된 2학기 토대상담 주간 행사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E]에서 ‘우승’은 ‘자기진단검사’의 사례를 들어 이전 발언에서 심리 검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수연’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연’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자신이 제시한 방안을 수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우승’은 2학기 행사를 주간 행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1학기 행사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서 고민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수연’은 1학기 때 후배와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승’이 제시한 주간 행사에 동조하고 있다. ③ [C]에서 ‘수연’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배경지식인 ‘레포’를 근거로 들어 ‘진희’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④ ‘진희’는 ‘우승’이 제안한 심리 검사에 대해 상담 받는 친구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장점을 추가하고 있다.

6. [출제의도] 토의를 바탕으로 작문 계획 수립하기

(나)의 4문단에 상담의 효과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로 한 작문 계획은 반영되어 있으나, 토의에서 논의한 토대상담의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는 동아리 소개와 토대 상담자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② 2문단에는 소통의 상대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과 ‘소통과 공감’이라는 토대상담 행사의 취지를 연결하여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③ 3문단에는 토의에서 결정한 토대상담 주간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그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인 ‘먼저 다가와 친구 되기’ 등이 나타나 있다. ④ 3문단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토의 후에 추가로 조사한 게임인 ‘감정 빙고 게임’ 등이, 심리 검사 종류인 ‘문장완성검사’ 등이 나타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글의 제목 작성하기

‘수연’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민재’가 (나)의 제목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목에는 마지막 문단의 핵심 단어와 동아리 이름을 활용하고, 부제에는 2학기 토대상담 행사가 1학기보다 개선된 점을 덧붙여야 한다. 마지막 문단의 핵심 단어로 ‘공감’, ‘이야기’, ‘고민’, ‘마음’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동아리 이름인 ‘수호천사’의 의미와 연관지어 제목을 붙이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수호천사를 만나다’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②의 부제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난 1학기 행사를 2학기에 세 가지 프로그램의 주간 행사로 체계화했다는 개선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목에 동아리 이름이 들어 있지만 마지막 문단의 핵심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부제에

는 개선점이 나타나 있다. ③ 제목에 핵심 단어가 나타나 있지만 동아리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부제에는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제목에 ‘공감’이라는 마지막 문단의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아리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부제에도 개선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제목에 동아리 이름이 들어 있지만 마지막 문단의 핵심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부제에도 개선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자유 연상으로 생성한 내용 점검하기

다음은 필자가 초고를 쓰기 전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내용을 연상한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생성한 내용들을 점검해야 한다. 학생의 초고에는 온실가스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점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에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작문 과제를 고려하여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나)에 ‘복극금 사진’의 사례를 활용하여 글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나)에 탄소 배출권의 개념 및 효과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나)에 탄소 배출권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제를 고려하여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주제, 독자, 맥락 등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며, ㉡은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며, ㉢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이다. ㉣을 활용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전환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4문단의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③ ㉠과 ㉡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회적 대책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탄소 배출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과 ㉡을 활용하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노력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적인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초고 수정하기

교지 편집장의 조언에 대해 글쓴이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실천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청소년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⑤ 온실가스 감축이 지닌 의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온실가스 감축이 지닌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읍문 변동의 이해와 적용하기

‘색연필[생년필]’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는 ‘첨가(연→년)’와 ‘ㄱ’이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ㅇ’로 바뀌는 ‘교체(색→생)’가 나타난다. 이는 ‘잡일[잡닐]’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같다.
【오답풀이】 ① ‘법학[바팍]’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축약(ㅂ+ㅁ→ㅍ)’이다. ② ‘담요[담뇨]’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첨가(요→뇨)’이며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국론[궁논]’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교체(국→궁, 론→논)’이며 ‘첨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한어류[한너류]’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첨가(여→너)’이며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형태소의 이해와 적용하기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의 자립 형태소는 ‘하늘’, ‘매우’로 2개이다.
【오답풀이】 ② 형식 형태소는 ‘이, -고, -다’로 3개이다. ③ 의존 형태소는 ‘이, 높-, -고, 푸르-, -다’로 5개이다. ④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높-, 푸르-’로 2개이다. ⑤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하늘, 매우’로 2개이다.

13. [출제의도] 불규칙 활용의 이해와 적용하기

‘묻다’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로 ‘묻고, 묻어, 묻게, 묻으며’ 등으로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오답풀이】 ①의 ‘퍼’는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우’ 불규칙이다.(푸-+-어→퍼) ③의 ‘들으면서’는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ㄷ’ 불규칙이다.(들-+-으면서→들으면서) ④의 ‘도와’는 ‘ㅁ’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ㅁ’ 불규칙이다.(돕-+-아→도와) ⑤의 ‘올라’는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형태도 변하는 ‘ㄹ’ 불규칙이다.(오르-+-아→올라)

14.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문장 이해하기

‘그녀는 학교에서 회장이 되었다’에서 ‘회장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어이다.
【오답풀이】 ② ‘그와 나’ 둘 중에 누가 남시를 더 좋아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시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더 남시를 좋아하다’로 의미가 분명하도록 고친 것이다. ③ 주어인 ‘우리 집의 특징은’과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문장을 고친 것이다. ④ 환경은 ‘개신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개신해야’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동 표현을 주동 표현으로 고친 것이다. ⑤ ‘조용히’와 조용하고 엄숙함을 뜻하는 ‘정숙’이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조용히’를 삭제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높임법의 이해와 적용하기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께’와 ‘드렸다’를 통해 문장의 목적어 ‘어머니’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주는 주체 높임법이다. ③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간접적으로 높여 주는 주체 높임법이다. ④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는 주체(아버지)가 화자보다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할머니)가 주체(아버지)보다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에 대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이다. ⑤ ‘윤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서’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주는 주체 높임법이다.

[16~19] 인문

* 출전: 『순자』(장형근)

[해제] 이 글은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순자의 사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숭상하는 고대 중국인들과 달리 순자는 하늘을 자연현상으로 보았으며 인간이 하늘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불구지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

‘하늘’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순자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③ 특정 이론에 대한 여러 비판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론에 대한 의의도 밝히고 있지 않다. ④ 고대 중국인들과 순자의 ‘하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한 결론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⑤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고대 중국인들은 새로운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이 하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오답풀이】 ①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③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주체로 인식하였다.

18. [출제의도] 핵심어에 함축된 의미 추론하기

4문단에서 순자는 재앙이 닥칠 때 인간들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며(ㄱ), 3문단에서 독립된 운행 법칙을 가진 하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ㄴ), 4문단에서 하늘에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 하였다(ㄷ)고 ‘불구지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2문단에서 순자는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대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세나 난세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고자 하였으며 하늘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하늘에서 찾고자 한 것(ㄷ)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맹자는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며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보기>와 달리 순자는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맹자는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이를 노력하고 수양하여 실현해 나간다는 점에서 하늘이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 생각하였다. ② 순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④ 맹자는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순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0~23] 현대사

(가)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해제] 이 작품은 답장 너머에서 풍겨오는 감자 냄새를 통해 어릴 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릴 적에는 그토록 싫었던 감자 냄새가 이제는 치명적 그리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시이다.
 [주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나) 나희덕, ‘땅굴’

[해제] 이 작품은 ‘땅굴’이라는 지명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의미를 더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희망이 있다는 화자의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주제]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

2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종결 어미 ‘-지’가 시행의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한 부분은 없다. ② (가)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나)에 구체적 청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구체화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할아버지께서 감자밥 드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정보는 알 수 없고, 단지 열한 명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자밥이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감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라는 표현에서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2연의 내용 중 감자가 무섭다거나 어지럽증을 매달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 감자를 싫어함을 알 수 있다. ③ ‘하나들 손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입마 밥주발엔 손가락 쫓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식구들이 밥이 모자라면 자신의 밥을 퍼 주기 위해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감자가 무섭고, 땡글땡글한 어지럽증까지 매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⑤ 3연을 통해 싫어했던 감자에 대해 치명적인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2.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B]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땅굴’을 화자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나 절망 등의 의미로 여기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그네를 타면서 느꼈던 절망과 답답함을 ‘어둠’이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인 ‘노을’에 다가가려 한다. ④ [C]에서 화자는 ‘파도’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삶의 위태로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⑤ [C]에서 화자는 ‘여기’인 땅굴에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얻는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어느 집 담장 곁을 지나가다 뜰에 있는 감자 삶는 냄새는 화자가 있고 있던 어린 시절을 감자가 떠올리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감자 삶는 ‘냄새’는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감자알’은 어릴 적 화자가 먹었던 감자를 뜻하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꽃’은 시적 상황으로 볼 때 가족들에게 있어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그넷줄’은 어릴 적 화자가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노을’이라는 대상에 가까이 가

기 위한 수단이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나비’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4~26] 현대소설

김유정, 「맹벌」

[해제] 어리숙한 덕순 내외가 대학병원에서 겪는 사건을 통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에서 느끼는 좌절과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덕순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오답풀이] ① 시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다. ④ 이 작품에는 액자식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는 드러나지 않는다.

25. [출제의도] 장면의 의미 이해하기

덕순은 얼음냉수와 왜떡으로 아내의 슬픔을 위로하지만, 이 장면에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왜떡을 먹고 싶은 것이라는 사실은 작품의 비극성을 더 심화시킨다.

[오답풀이] ① 상황에 대한 덕순의 인식이 변함에 따라 덕순의 심리가 달라짐을 길의 오르내림을 통해 보여준다. ② 닭을 사 먹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아내에게 닭을 먹이지 못한 덕순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④ 돈이 없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아내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⑤ 가혹한 현실 속에서 겪는 삶의 험거움을 ‘맹벌’이라는 배경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덕순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장면은 덕순의 어리숙함을 보여주며, 작가는 이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은 간호부와 의사가 비소를 금지 못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은 가난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덕순 아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 ② 아내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동네 어른의 말을 무작정 믿고 희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덕순의 어리숙함을 알 수 있다. ③ 아내의 눈물은 비극적인 상황에 좌절하는 개인을 형상화한다. ⑤ 냉정한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은 순박한 인물의 성격과 대비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이 더 부각된다.

[27~32] 과학

* 출전 : 『호기심의 과학』 (유재준)

[해제] 이 글은 일상의 자연스런 호기심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연결시켜 과학의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지문으로 제시한 부분에서는 ‘북극 해빙은 왜 녹지 않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열에너지의 전달 원리, 물체의 면적과 부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찾아내고 있다.

27. [출제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윗글은 열에너지의 전달 원리, ‘제곱-세제곱 법칙’에 따른 면적과 부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북극 해빙은 왜 녹지 않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윗글을 읽을 때에는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추론 과정을 분석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주요 개념인 열에너지의 전달 과정, ‘제곱-세제곱 법칙’에 대한 변칙 과정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질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반적

인 생각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윗글은 추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이므로, 글쓴이의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6문단의 어떤 물체의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², 부피는 L³만큼 비례하여 커진다’라는 부분을 통해 면적이 커지면 부피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비례한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북극 해빙은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닥 부분만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녹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두 물체 간 전달하는 열에너지의 양은 접촉 면의 면적과 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3, 4문단의 열음이 녹는 상황에 적용했을 때 열음이 물에 접촉하는 면적이 클수록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열적 평형’은 접촉한 물체들의 열이 똑같아져 서로 어떠한 영향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이므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접촉한 두 물체 간 열에너지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이 문항은 윗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어름에도 열음을 보관할 수 있는 석빙고의 원리를 추론하는 것이다. 윗글의 4~6문단을 통해 열음이 잘 녹지 않으려면 접촉 면적이 줄어들거나 부피가 매우 크게 늘어나야 함을 알 수 있다. 열음들을 정육면체인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보관하면 각각의 열음 조각이 공기에 닿는 것보다 접촉 면적이 줄어들고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이 방법은 열음이 잘 녹지 않게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오답풀이] ① 열음들을 원형으로 만들어 보관하면 열음과 공기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열음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관하더라도 열음의 부피나 접촉 면적은 현재 상태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한 줄로 높이 세워 보관하면 공기와 접촉면이 줄어들어 6면 중 최대 2면만이 공기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는 ⑤에서 열음들을 덩어리로 만들면 최대 6면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접촉되는 면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열음들의 표면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것 또한 열음의 부피나 접촉 면적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물의 온도가 열음의 열에너지를 더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핵심 개념 활용하여 분석하기

6문단의 ‘제곱-세제곱 법칙’ 설명에 따라 정육면체 열음이 녹는 시간은 L³만큼 길어짐을 알 수 있으며, 4문단의 실험 결과와 이를 관련시키면 정육면체 열음이 녹는 시간은 ‘약 2시간×L’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약 4시간이다. 하지만 ④에서 ㉠을 물에 띄운다는 것은 열을 조각 6면 중 한 면만 물에 접촉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녹는 시간은 물에 잠겨 있을 때보다 6배 오래 걸릴 때 문에 약 24시간이 된다.

[오답풀이] ① 6문단의 ‘제곱-세제곱 법칙’을 통해 ㉠의 면적은 4cm²이고 ㉡의 면적은 36cm²임을 알 수 있고, 이 비율 차이는 9배이므로 적절하다. ② 6문단의 ‘제곱-세제곱 법칙’을 통해 ㉠의 부피는 8cm³이고 ㉡의 부피는 216cm³임을 알 수 있고, 이 비율 차이는 27배이므로 적절하다. ③ 정육면체 열음이 녹는 시간은 ‘약 2시간×L’이고, ㉠이 완전히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이므로, ㉡을 6시간 후에 관찰했을 때에는 완전히 녹아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을 통해 ㉠을 한 번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열음 8개로 쪼개 뒤 각각 물에 잠기게 하여 녹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열음 한 개를 물에 잠기게 해서 녹이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앞서 설명한 정육면체 열음이 녹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이 시간은 약 6시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1. [출제의도]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서 코끼리의 무게와 부피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생산하는 열에너지도 가장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열에너지를 방출하려면 그에 적합한 피부 면적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6문단의 ‘제곱-세제곱 법칙’에 따르면 코끼리의 부피는 피부 면적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코끼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를 펴려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코끼리가 귀를 펴려는 이유는 열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윗글을 통해 코끼리의 체온보다 외부 기온이 높아질 경우 열에너지가 코끼리의 몸으로 더 많이 전달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코끼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에너지를 열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귀를 더 많이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보다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② <보기>를 바탕으로 만약 코끼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 몸에서 만들어 내는 열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귀를 흔들어 체온을 낮출 이유가 없을 수 있다. ③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체온과의 온도차 때문에 다른 지역의 코끼리보다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한다. 2문단 마지막을 보면 두 물체 간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접촉 면의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를 방출하려면 귀의 면적이 더 커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몸에서 만들어 내는 열에너지는 동물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일반적인 코끼리보다 몸에서 만들어 내는 열에너지가 많을 것이므로 열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야 한다. 따라서 귀를 펴려서 더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⑥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라는 뜻을 가진 ‘넘다’의 사동사이며, 문맥상 시간과 관련되어 쓰였다. ⑤는 ‘넘기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관련되어 쓰였기 때문에 ⑥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음식물, 침 따위를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서 있는 것을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넘다’의 사동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물건, 권리나 책임, 일 등을 맡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3~36] 고전소설

작자 미상, 『흥재월전』

[해제]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활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제] 흥재월의 영웅적 활약상

3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첫 문단에 흥부가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지만 모함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일에 힘쓰는 것까지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얼굴이 화려하다는 등의 외양묘사가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한 것은 아니다. ③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된 공간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한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초월적 존재인 선녀와의 대화는 있지만 이를 통해 양씨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세월의 출생 과정 및 이후 성장 과정 등 여러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보국’은 ‘원수’(세월)의 분부를 받아 전쟁터로 나아가 싸운다. 그러므로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홍부’와 ‘양씨 부인’의 대화를 통해 가족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양씨 부인’의 첫 번째 대화를 통해 ‘홍부’에게 침을 들일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곽도사’는 ‘세월’에게 다섯 살에 부모와 헤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곽도사’의 말을 듣고 ‘세월’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남장을 시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구조 이해하기

시랑은 세월이 남자로 태어나 문호를 빛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한 것이므로 세월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 이부시랑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세월의 고귀한 혈통을 알 수 있다. ② 선녀가 득죄하여 부인 책으로 와서 아기가 된다는 부분을 볼 때 잉태 과정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줄거리 중 여공이 세월을 구해 주는 내용을 통해 여공이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세월이 적장 오십여 명과 적병 천여 명을 베고 보국을 구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시나리오 기법의 효과 이해하기

보국은 운평에게 승리하고 난 후 기세가 오른 상황이므로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영경루 전쟁터를 멀리서 조망함으로써 대규모 전쟁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② 장군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삼척장검과 이에 어울리는 갑옷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적병에게 포위되는 보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사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⑤ 의기양양해하다가 갑자기 포위당난 보국의 당황한 심리를 표정 확대를 통해 강조할 수 있다.

[37~41] 사회

* 출전: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해제】 이 글은 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법이란 사회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제성을 지닌 규칙이다. 대표적인 법으로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이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며 인간 이외의 것들은 모두 물건이므로 법적 권리가 없다.

37. [출제의도] 핵심 개념 파악하기

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였을 때에만 발효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③ 법이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기 힘들다. ④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민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답풀이】 ①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민법이 악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되었다. ②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서 다툼을 해결할 때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④ 20세기에 들어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수정된 원칙이 민법에 적용되고 있다. ⑤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형성되었다.

39.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해진 범죄만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절차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은 고소, ㉡는 체포, ㉢은 기소이다.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고소는 피해자가 한다. ③ 범행을 실행 중인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소를 할 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원인 반면, 범인의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형법은 유추 적용을 할 수 없으며, C는 B의 점유자이지 신체를 상해한 자가 아니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①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과 B는 모두 물건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 ② 민법 제759조 ①을 유추 적용한다면 C는 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A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형법은 범죄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42~45] 갈래 복합(교전시가, 수필)

(가) 박민로, 「누항사」

【해제】 작가가 51세 때 지은 작품으로 『노계집(蘆溪集)』에 수록되어 있다. ‘누항(陋巷)’이란 가난한 살가운데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안빈낙도하는 이상적 삶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의 빈곤함 때문에 스스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겪는 고뇌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의연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주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하는 삶

(나)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해제】 가난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부부’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룬 3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수필

이다. 이 글은 그 중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난한 시절을 함께 한 부부의 사랑이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행복은 반드시 부(富)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준다.

【주제】 가난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깨달음

42.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화자가 소를 빌리는 구체적 일화를 활용하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에 의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남편을 찾으러 가는 구체적 일화를 활용하여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으로 그 현실을 인내하는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공간의 이동은 있지만,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 이해하기

[A]에서는 ‘구슬 같은 기름’이라는 구절에서 비유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 구절에서는 인물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는 주로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B]는 경구를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④ [B]는 ‘8·15’나 ‘전보’ 등의 어휘를 통해 구체적인 시대상을 드러낸다. ⑤ [A]와 [B]는 모두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의 벽에 걸린 쟁기는 농사를 못하게 되어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대상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화자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도 안빈일념하려는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② ㉡은 사대부인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소를 빌리려는 다급한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은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현실의 한계를 느끼는 처량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⑤ ㉠에서 낫집대를 빌리는 것은 ㉢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풍월강산’은 농사일을 포기한 화자가 강호에서 안빈일념의 꿈을 꾸며 살겠다는 현재의 소망을 다짐하는 공간이고, ‘경춘선’은 아내가 남편과의 파토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풍월강산’은 현실의 시름을 잊는 공간으로 환상적 세계는 아니다. ③ ‘풍월강산’은 과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지 않고 ‘경춘선’에서는 현재의 자긍심을 느낄 수 없다. ④ ‘풍월강산’은 현재를 비판하는 공간이 아니며, ‘경춘선’은 미래의 희망을 기원하는 공간이 아니다. ⑤ ‘경춘선’은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이 아니다.